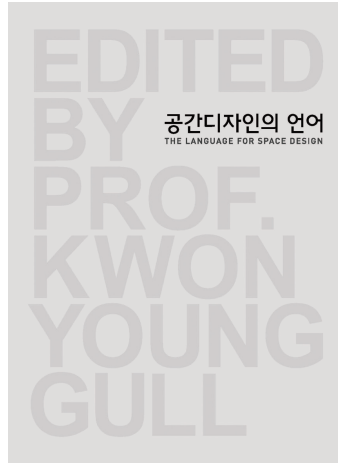

공간디자인의 언어

권영걸 공저, 날마다, 2011



김주미

김주미는 이화여자대학교 장식미술학과에서 실내환경디자인 학사를, 동 대학 대학원에서 환경 디자인전공으로 석사를 마쳤으며, 홍익대학교에서 공간디자인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계선인터내셔널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디자인학부 공간환경·산업디자인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논문으로 「공간디자인에 적용된 프랙탈 특성의 인지생태론적 효과」와 「공간지각의 비선형 구조」가 있다.

<공간디자인의 언어>는 2001년 <공간디자인16講>출간 이후, 새롭게 제기되는 공간디자인 담론과 이론들을 다학제적 관점에서 다룬 책이다. <공간디자인16講>은 권영걸 교수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의 공간디자인론 수업에서 16주(당시에는 한 학기가 16주였다)동안 강의했던 내용을 모은 것으로, 공간이란 무엇인가와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서부터, 그 복합에서 파생되는 각종의 담론과 그들이 갖는 시대적 함의를 다룬 책이다. 이 책 <공간디자인의 언어>는 10년전 <공간디자인16講>이 제시한 쟁점들을 명시적으로 구체화하여, 인간, 문화, 디지털, 그리고 생태를 공간디자인이라는 우산 아래 통섭한 앤솔로지(anthology) 형식의 저술이다.

일반적으로 앤솔로지는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공통관점이나 차이들을 상호연결하고 통합하기 위해 엮여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앤솔로지는 다학제적 연구에의 참여와 연대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글쓰기 방법으로, 해당 학문 영역의 이론적 동향을 살피고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종래의 분과학문으로서 독자성이 강조되어온 도시, 조경, 건축, 실내, 산업디자인 영역들을 공간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자연과학, 인류학, 생물학, 시스템공학, 마케팅 등 다양한 인접학문과의 통섭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 패러다임과 미래 디자인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21세기 디자인 패러다임에 조응하여, 새 시대의 공간디자인을 네 범역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1. 인간 중심의 공간디자인 Human-centered Space Design

공간디자인에 있어 인간-환경 관계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이해는 공간 이데올로기의 기초가 되어 온 인간의 모델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저자들은 공간디자인의 학문적 기반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인간 모델을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행위, 사회적 행동, 미적경험 등을 지원하는 방식의 논구에서부터, 공간형식이 작용적 수준 및 감성적 수준에서 인간에게 주는 효용성의 문제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 장은 인간-환경의 관계성, 인간 본성의 회복, 공공성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것으로부터 자율성과 자치성을 가진 능동적인 인간에 대한 시선을 아우르고 있다. 전반부는 인지생태론(Cognitive Ecology)에 기초한 뇌, 몸, 공간의 상호성, 그리고 깁슨(James J. Gibson)의 어포던스(Affordance)개념과 현상학적 공간경험을 강조하는 내러티브(Narrative)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에 기반 한 치유공간, 공공디자인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제1목표로 삼는 인

본주의적이고 배제주의적인 디자인, 다중을 배려하는 포용디자인(Inclusive Design) 등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보행공간과 길 찾기(Way-finding) 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제안하는 한편, 일상의 삶 속에서 행동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나가기 위한 인간중심의 공간디자인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동체 속에 내재된 소외, 상처,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회복력 있는 도시(Resilient City)에 이르기까지 시각을 확장하고 있는 바, 이는 도시공간에 인간적인 요소와 콘텐츠를 결합시키는 치유 가능한 공간에 대한 담론이다.

이상 1장은 공간디자이너들이 어떠한 인간관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가치관과 규범적 인식의 필요성, 나아가 실천방법까지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문화 지향의 공간디자인 Culture-oriented Space Design

공간디자인은 물질성의 구축을 넘어, 문화적 이데올로기와 시대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한정시키는 문화적 행위이다. 우리의 삶의 공간은 시대정신이 물질형식을 빌어 양식화된 것으로, 동 시대 사람들의 문화와 인간관·자연관·세계관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장은 공간을 인간-환경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언어 또는 매체로 규정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국격(National Status), 공간의 정체성(Identity), 세계지역화(Glocalization), 지역과 장소의 재생(Regeneration), 문화유산(Heritage), 축제(Festivity) 등의 개념을 문화지향의 공간디자인을 위한 주요 방향과 가치로 제안하고 있다. 지역 문화의 정체성은 특정 지역의 환경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들의 상호관계인 컨텍스트와 그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콘텐츠의 융합으로 설명한다. 세계화의 가속화와 동시에 지역성이 강화되는 세계지역특성화 시대의 지역성은 지리적 경계보다는 문화적 유사성에 좌우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지식기반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문화’가 새로운 가치 창출의 힘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래에는 문화가 경제적 고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요인으로 ‘컬처노믹스(culturenomics)’가 중시되고, 문화 도시 구축과 도심재생의 문제, 문화유산 보존 등이 중요한 실천전략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빛 경관(Lightscape), 문화공간의 브랜딩(Branding), 스타일(Style), 프로덕션(Production), 색채의 풍토지리학(Color Geography), 색채미학(Color Aesthetics), 물성(Materiality) 등의 주제를 통해 새로운 세기가 창의성, 상상력, 이야기와 감성 등이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화지향적 공간디자인은 역사와 전통에 닿아 있는 맥락적인 디자인, 기후 풍토에 순응하는 지역의

디자인, 색채와 빛의 연출로 기억되는 공간, 스타일에 기반 한 시적 감성의 공간 등으로 대변될 수 있음을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설명한다.

이상 2장에서는 인간 삶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보편적 공감을 끌어내는 문화적 포용과 참여의 공간들이 결과적으로는 산업의 문화화, 문화의 산업화를 이끌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디지털 주도의 공간디자인 Digital-driven Space Design

종래의 디자인 과정에서 형태를 결정하는 디자이너의 해석과 판단은 예측적이며, 선형적인 과정에 기초했다. 그러나 이 장은 디지털미디어에 의존한 공간생성과정이 끊임 없이 변화를 수반하며 비예측적이고 비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구체적인 사례들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공간디자인에 있어 형태발견과 생성에 대한 과학적 담론과 시스템적인 자연, 디지털 미디어와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연구 주제들은 모포제네시스(Morphogenesis), 디지털미디어(Digital Media)공간, 인터페이스와 경험(UI & UX),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혼성화(Hybridization), 프랙탈(Fractals), 형태문법(Space Grammar), 시노그래피(Scenography), 데이터 페브리케이션(Data Fabrication) 등으로, 공간 성형과 디지털 기술과의 관계성을 폭 넓게 논의하고 있다.

이상 3장에서는 과학자들이 복잡한 형태가 성장, 창발, 적응, 자기조직화를 통해 어떻게 발생되는가를 연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디자이너 역시 패턴의 본질을 추구하며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원용하여 공간생성을 시도하고 있는바, 그 과정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공간디자인에 있어서 비선형적, 비결정론적 시스템을 통한 형태 발견과 생성능력은 디지털미디어가 결정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가 기존의 단순한 형태적 모방이 아닌 근원적 원리의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형태 만들기(form making)가 아닌 형태 찾기(form finding) 개념의 새로운 공간디자인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 생태 기반의 공간디자인 Ecology-based Space Design

21세기 디자인의 주요 코드인 에콜로지(ecology)를 중심으로 한 공간담론의 연구 주제들은 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 인지제의(因地制宜),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 리사이클링(Recycling), 어반 그린웨이(Urban Greenway), 도시의 생태적 회귀, 친수(Water Friendly)공간, 풍수(Feng Shui), 슬로우 시티(Slow City) 등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친화적인 공간디자인의 문제를 전통적, 맥락적, 도시환경적 관점에서 접근

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과학, 예술, 미디어 등과 생태환경과의 관계성을 정립하고 다양한 접목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나아가 유기체론, 자기생성적 프로세스, 그리고 환경친화적 디자인에 관한 담론들을 통해 공간디자인에 있어 자연의 영향을 강조한다. 후반부에서는 공통적으로 환경 부하가 적고, 자연생태계의 원리 즉 다양성, 자립성, 경제성, 안전성, 순환성 등이 유지되고 자연과의 공생을 근간으로 하는 자연친화,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어반 그린웨이, 산업화 및 탈산업화 과정에서 생성된 브라운필드(brownfield)의 재생개념과 이를 통한 도시의 생태적 회귀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 공간디자인 패러다임의 한 축이 될 느낌의 미학, 슬로우 시티를 지역 풍토에 순응하고 지속적인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이자 고유 문화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책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점은 공간디자인의 이론적 동향과 이슈들을 다학제적 관점으로 다루었다는 것이다. 학문과 학문간의 상보적 관계라는 폭 넓은 시각 속에서 지식들을 상호연결하여 새로운 하이브리드를 도출하고자 한 점에서 이 책은 높이 평가될 수 있다. 10년 전 <공간디자인16講>이 공간디자인의 개념과 가치를 정립한 거시적 관점의 책이었다면, <공간디자인의 언어>는 공간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과 함께 이전의 관습적인 주제들을 넘어 치유, 회복, 브랜드, 국격, 문화유산, 데이터 물질형식, 생체모방, 공공성, 여성성, 생태적 회귀, 슬로우 시티 등의 주제들까지를 포괄함으로써 공간디자인의 지평을 크게 열어가고자 했다. 기실 공간디자인학은 태생적으로 학제 간 연계에 바탕을 둔 복합학문으로 다학제적, 교차학문적 특성을 지닌 제3의 학문 영역이다. 종래의 모던 패러다임이 매어 달렸던 객관적 사실 또는 물체로서의 공간에 대한 인식은, 20세기 후기에 대두된 반데카르트적 사고방식과 생태론적 관점에 기초한 관계적(relational), 시스템적(systematic)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그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이 책 <공간디자인의 언어>를 관통하는 공통의 이념이며,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서 40명의 필진들이 그러한 이념을 공유한 학문적 공동체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끝으로 <공간디자인의 언어>는 시대정신과 담론들을 생산하고자 하는 시도로 미래 학문연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 책에서 제시된 디자인 주제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윤리적, 기술적, 상징적, 제도적, 철학적 그리고 문화적인 다수의 현실들을 전일적으로 탐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간디자인학의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하는 준거가 될 것이다.